

##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에 따른 대중적 향유 전략\*

박상민\*\*

1. 서론
2. 『토지』의 서술 특징과 향유의 장애 요소
3. 개별적 장애 요소의 극복 전략
  - 3-1. 축약본 발간
  - 3-2. 장르 변용
  - 3-3. 그 밖의 방안
4. 결론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대중적 향유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토지』는 매우 긴 장편소설이며, 단속적 서술 특징 때문에 집중하여 한 번에 읽어내기가 어려운 작품이다. 이 때문에 『토지』는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막상 『토지』를 완독한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토지』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독법의 핵심은 작품 전체를 완독해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좀 더 '느슨하게' 독서하고, '관용적'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 글에서는

---

\* 이 논문은 토지학회 2016년 가을 학술대회(2016.10.29. 원주시 토지문화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조교수.

『토지』의 축약본 발간과 장르 변용, 대중적 문화 행사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여러 축약본이 발간되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고, 시간이 지난 후 다수 대중으로부터 축약본이 확정된다면, 이는 다른 문학 작품들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토지』의 대중화 전략은 다른 예술 작품의 대중화 전략에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다양한 고전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장르 간 자유로운 변용을 통해 민족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아가는데 『토지』의 대중화 작업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박경리, 토지, 대중적 향유, 서술 특징, 『토지』의 서술 특징, 축약본, 장르 변용)

## 1. 서론

이 글은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대중적 향유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는 긴 장편소설이며, 단속적 서술 특징 때문에 집중하여 한 번에 읽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수많은 독자와 연구자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 대중이 『토지』의 작가와 줄거리를 알고 있지만, 막상 『토지』를 완독한 사람은 드물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안하려 한다. 새로운 독법의 핵심은 작품 전체를 완독해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좀 더 ‘느슨하게’ 독서하고, ‘관용적’으로 향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설 『토지』의 서술 특징을 TV드라마, 영화, 종교 경전 등 다른

장르의 텍스트들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의 서술 특징이 일반적인 장편소설과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고, 『토지』가 다른 어떤 소설보다 '느슨한' 독서가 필요한 작품임을 주장할 것이다.

『토지』의 서술 특징은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sup>1)</sup> 그 초점은 작품의 시간, 공간, 인물에 집중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실패에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의 순간까지를 그린 『토지』는 3대에 걸친 긴 시간 구조를 갖고 있으며, 평사리에서 시작하여 진주, 서울, 부산, 중국, 일본, 연해주 등 광대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 700명이 넘는 압도적 숫자의 인물들로 인해 작품의 서술 방식은 일반적인 소설의 그것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정현기는 『토지』를 전(傳), 필(筆), 록(錄), 기(記), 기(奇), 지(志), 설(說), 담(談) 등의 '다양한 전통적 이야기 기법을 가장 정확하고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초의 작품'으로 보고, 무수한 이야기가 각각 하나의 '마디'가 되어 거대한 '우주의 집'을 짓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이는 『토지』가 장대한 시공간과 무수한 인물군의 이야기를 서술하기 위해 단속적(斷續的) 구성을 취했으며, 이러한 서술 특성이 기존의 전통적 서사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최유찬은 『토지』의 시공간구조가 '우주대폭발'이라고 불리는 빅뱅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1) 대부분의 『토지』 논문에는 작품의 서술 특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최근 토지학회는 토지 총서 두 번째 시리즈로 『토지와 서사구조』(마로니에북스, 2016)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최근 동안 발표된 『토지』의 서사 구조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의미 있는 연구들을 집대성하였다. 최근에 나온 작품의 서술 특성에 대한 다양한 소개 및 설명은 이승윤의 『『토지』의 서사 전개 양상과 소설 작법』(『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2018)을 참고할 것.

2) 정현기, 『세 틀의 '새집 짓기' 이야기 떨기-『토지』 해석의 또 한 눈길』, 『현대문학의 연구』 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200쪽.

창공으로 전개된 우주역사의 전체모습에 비견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작품의 구조를 ‘몸과 마음이 음변양화(陰變陽化)하는 (태극 모양의)<sup>3)</sup>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sup>4)</sup> 『토지』의 서술 특징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자로 평가받는 최유찬의 이러한 설명은 『토지』의 서사가 매우 장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장대한 서사를 떠받치는 체계적 서술 전략 속에 세워져 있음을 알려준다. 이 논문에서 최유찬은 『토지』의 서술이 전통적 판소리의 서술 전략과 유사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서사물과의 관련성을 지적한 정현기의 지적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김인숙은 작중 인물들의 대화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토지』를 다성악적 소설로 파악하였으며,<sup>5)</sup> 김원규는 『토지』에는 중심을 지향하는 위계적인 서사 구도가 없는 ‘리즘의 형식’을 닮아 있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김인숙과 김원규의 이러한 분석은 『토지』의 단속적(斷續的) 서사가 작품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서사 구조를 거부하고 서술자의 단성적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작품의 서술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지』는 장대한 시공간과 수많은 인물들로 인해 일반적인 소설 작품의 서술 전략을 따를 수 없는, 그래서 새로운 서술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토지』 서술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작품의 독서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중심으로 『토지』의 서술 특징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3) 괄호 안의 설명은 필자가 해석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넣었음.

4) 최유찬, 『『토지』의 장르론적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1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412-413쪽.

5) 김인숙, 『박경리 『토지』의 대화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원규, 『『토지』의 단역인물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325쪽.

## 2. 『토지』의 서술 특징과 향유의 장애 요소

『토지』의 서술 특징을 논하기에 앞서 이 작품의 장애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자. 『토지』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애 요소는 작품의 분량이다. 200자 원고지로 3만 장<sup>7)</sup>이 넘는 『토지』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긴 소설로 평가된다.<sup>8)</sup> 일반적으로 작품이 길면 독자의 몰입이 어려워진다. 생활의 템포가 점점 더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수개월 동안 읽어야 하는 『토지』는 독자의 독서 의지를 꺾는 주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긴 향유 시간이 모든 예술 장르에서 심각한 장애 요소는 아니다. TV드라마의 경우 수십 회에서 수백 회에 이르는 긴 방영 기간을 갖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MBC에서 방영했던 〈거침 없이 하이킥〉은 167부작이었다. 뿐 아니라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6부작으로 방영했던 〈지붕 뚫고 하이킥〉,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3부작으로 방영했던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등을 모두 〈거침 없이 하이킥〉의 ‘시즌2’와 ‘시즌3’으로 본다면 하이킥 연작은 416부라는 대작이 된다. 이처럼 TV 드라마의 경우 수백 편이 단속적으로 방영되지만 시청자들은, 소설에 비해 상대적이겠지만, 별로 불편해 하지 않는다.

TV드라마와 달리 소설 작품의 긴 분량이 독자의 독서를 방해하는 원

7) 『토지』의 분량은 2002년에 출간된 나남 출판사의 판본을 기준으로 총 5,132,141자(字)이며, 1,260,346단어(單語)이다. 이를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문장부호와 문단수를 제외하고도 31,963장이다. 이후 2012년에 출간된 마로니에박스 판본은 여러 군데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글자 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8) 영·정조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소설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은 총 180권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긴 소설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소설은 한 명의 저자가 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에 따른 수용자의 태도 차이이다. TV드라마는 소설책에 비해 수동적인 수용이 가능하다. 시청자는 TV수신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드라마 시청이 가능하다. 직접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야 하는 독서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물론 이는 매체의 특징이라기보다 TV드라마 시청자와 소설 독자가 취하는 수용 태도의 차이일 것이다.<sup>9)</sup> 동일한 인물이 TV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하고, 소설책을 읽기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TV를 시청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거나, 함께 시청하는 가족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책을 읽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혼자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자는 충분한 시간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독서'보다는 'TV 시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TV드라마와 소설의 수용자가 보이는 집중도의 차이는 서사의 부분적 결락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소설 독자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결락도 없이 모두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TV드라마는 다르다. 위에서 예시했듯이 TV드라마의 수용자는 함께 시청 중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도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업무를 보기도 한다. 심지어 연속된 방영 중 일부 회차를 못 본 경우에도 이를 건너뛴 채 다음 회차를

9)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에서 '차가운 미디어'와 '뜨거운 미디어'를 구분하였다. 매클루언은 책이나 신문 등의 매체가 그 안에 이미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수용자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신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뜨거운 미디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텔레비전은 전달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상상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한 '차가운 미디어'라고 했다. 매클루언의 이러한 설명은 시청각 미디어가 기존의 시각 미디어에 비해 수용자의 더 많은 감각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시청한다. 하지만 소설의 독자는 다르다. 소설의 독자는 자신이 작가의 메시지를 모두 해독해야만 하는 암호해독가라도 되는 듯이 작품의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sup>10)</sup>

동일인이라도 그가 향유하려는 작품에 따라 '서사적 결락'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 수 있다. '촘촘한 향유'가 필수적인 서사물과 그렇지 않은 서사물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TV드라마에 비해 촘촘한 향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고의 방향을 바꾸면, 모든 소설을 다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TV드라마도 드라마의 특성이나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촘촘한 향유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듯이, 소설 작품도 서술적 특성이나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느슨한 향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조금 돌려서 설명했지만, 박경리 『토지』의 경우 과연 '촘촘한 향유(독서)'가 필수적인지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독자에 따라, 또 읽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지』는 긴 분량과 단속적인 서술 특징 때문에 작품 전체를 한 번에 읽어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거꾸로, 바로 그 단속적인 서술 특징 때문에 『토지』는 서사적 결락과 무관하게 유의미한 향유가 가능하다. 즉 『토지』는 독자가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읽거나, 특정 부분을 건너뛰고 읽어도 상당한 수준에서 작품의 진면목을

10)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구분이다. 수용자에 따라 좋아하는 드라마를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하는 시청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TV드라마 역시 특정 부분을 시청하지 못하면 작품의 서사적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작품 감상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 흔히 '미니 시리즈'라 불리는 20회 미만의 드라마는 특히 그렇다. 최근 들어 이러한 드라마가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IPTV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한 매체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드라마 제작사의 입장에서 드라마의 서사를 조밀하게 구성하고 분량을 20회 미만으로 편성하면, 드라마 전체를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시청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미니시리즈'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음미할 수 있는 작품이다.

『토지』는 세 차례나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드라마 전부를 시청한 사람은 드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토지』를 조금씩은 시청하였다. 드라마를 보면서 『토지』의 주요 인물과 핵심 갈등,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것이다. 어쩌면 『토지』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상당 부분 이렇게 단속적인 드라마 시청 경험에 근거했을 것이다. 『토지』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들은 작품의 일부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토지』의 핵심 서사를 최서희의 복수극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토지』는 그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 대중의 이러한 이해를 ‘틀린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토지』에서 서희의 복수극은 서사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런 점에서 다수 대중의 판단은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이해한 것이다. 이 글에서 ‘대중’ 또는 ‘그들’이라고 일반화했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개별적 존재이며, 각 개인별로 서로 다른 이해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심지어 작품을 완독하지 않은 독자도 완독한 독자보다 『토지』의 핵심 주제를 더 잘 이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sup>11)</sup>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토지』의 중요한 서사적 특징이

11) 염무웅, 송재영, 김병익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토지』 2부가 연재 중일 때, 또는 연재 직후에 각각 평론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주제와 문학적 의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심층적 분석들이 서술되어 있다. 작품 전체를 완독하지 않고도 작품에 대해 충분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토지』 분석은 이후의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으며, 특히 『토지』가 한국문학



드러난다.

『토지』는 작품을 끝까지 읽었는지 여부가 작품 이해의 핵심 요건이 아닌, 우리 문화사에서 드문 작품이다. 1969년부터 연재를 시작했던 소설 『토지』는 1973년에 1부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 1부만 읽고 더 이상 읽지 못한 독자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독서를 불완전한 독서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75년까지 지속적으로 연재했던 작가는 『토지』 2부 집필 후 1년 남짓한 휴지기를 갖는다. 3부를 집필한 뒤에는 5년의 휴지기를 가졌고, 4부 집필 후에도 다시 5년의 휴지기를 가졌다. 『토지』는 총 26년이라는 긴 연재 기간을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3부까지 연재를 마친 뒤 『토지』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작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수많은 독자들이 작품의 완결 전에 이미 작품을 대작으로 인정한 것이다.

『토지』가 서사적 결락에 관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작품이 실제로 있었던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작품을 읽지 않고도 작품의 주요 배경을 이미 이해한 상태이다. 소설의 주요 요소인 '배경'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토지』의 일부만 읽고도 작품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부분적으로 옳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일부 퓨전 사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극은 서사의 큰 흐름에서 역사적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극이 역사 왜곡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인물의 주요 행적

---

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염무웅, 『역사라는 운명극』, 『신동아』, 동아일보사, 1973.11; 송재영, 『소설의 넓이와 깊이』, 『문학과지성』, 문학과지성사, 1974.2; 김병익, 『『土地』의 세계와 갈등의 진상』, 『한국문학』, 한국문학, 1977.6)

을 왜곡하는 경우도 드물다. —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청자들이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로 사극의 인식적 편안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해당 사극을 보기 전부터 이미 일정하게 사극의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는 다른 장르보다 좀 더 편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일부 회차를 보지 않고 건너 뛰어도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작품 전체를 한 번에 감상하지 않고, 일부만 잘라서 감상하는 것이 일반화된 장르도 있다. 대표적으로 판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판소리는 작품의 특정 대목만을 잘라서 연행한다. 간혹 8시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완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소리 연행의 일반적 형태는 아니다. 사실 관객들 역시 작품 전체를 보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연행 시간이 너무 길고, 무엇보다 주요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리꾼과 고수의 장단에 맞춰 한바탕 신명을 돋구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서사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서양 음악인 소나타, 칸타타, 관현악 협주곡 등에서도 전곡을 연주하지 않고 부분만 연주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처럼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적 향유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미적 체험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개의 경우 ‘부분적 향유’는 특정한 연행 양식에 국한되므로, 소설 장르에서 부분 독서는 흔한 방식이 아니다. 누군가 특정 소설의 일부만을 읽었다면, 그는 아직 그 책을 ‘읽은 않은’ 상태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이다. 소설뿐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영화를 보던 중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서, 관람을 중단하고 전화를 받는 것은 상식적인 관람이 아니다.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왔다면, 그는 영화를 보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이나 영화의 경우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모두 완독 또는 관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사 장르에서 스토리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일반적 구성을 갖고 있다. ‘발단’과 ‘전개’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정’ 부분에서 몰입할 수 없고, ‘결말’에서 감동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다면 TV드라마를 볼 때 시청자들은 왜 영화만큼 집중하지 않는가? TV드라마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일반적인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는가?

대부분의 TV드라마 역시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서사 장르의 일반적 구성을 따른다. 다만 TV드라마는 영화에 비해 각 시퀀스 간의 연결이 다소 느슨하다. 시청자는 앞부분의 몇 가지 내용을 보지 못했어도,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의 전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유추가 가능하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그리고 방해꾼과 조력자 등만 파악하면 특정 부분에서 각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보기’가 어려운 TV드라마의 일방향성과 시간 예술적 특성에서 비롯된 방송사의 상업적 전략에서 비롯된 TV드라마 양식의 일반적 관행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시 보기’ 기능이 쉬워지면서 TV드라마에서 각 시퀀스 간의 연결이 점차 조밀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TV드라마는 영화에 비해 조밀한 구성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TV드라마가 영화에 비해 분량이 길다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몇 달에 걸쳐 수십 회씩 이어지는 TV드라마를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두 보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며, 또 모두 본다고 해도 한 주 이상의 휴지기를 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전개나 예외적 복선이 너무 많으면 시청자가 집중하기 어

려울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청자가 느슨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한 TV드라마가 있다. 바로 시트콤 드라마이다. 시트콤은 주요 인물들이 동일한 배경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그 자체로 완결된다. 일부 에피소드는 이후의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작가는 이미 있는 인물과 배경을 그대로 둔 채 사건만을 바꾸어 극을 전개한다. 이는 작가의 입장에서도 품이 덜 가는 작업이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영화나 소설의 ‘발단’이나 ‘전개’ 일부를 시트콤의 각 에피소드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소설의 독자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과 인물 간 갈등, 이야기의 배경 등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시트콤은 그런 시간을 모두 생략하고 곧장 핵심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독자는 인물이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곧장 속도감 있게 각 에피소드를 감상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지』의 구성도 다른 일반적인 소설보다는 오히려 TV드라마와 유사한 점이 있다. 『토지』는 구한말과 일제 시대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최 참판 가문의 가족사와 평사리 주민들, 그리고 여러 지식인들의 수많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시트콤처럼 각 에피소드가 한 회분의 방송시간에 제한받지는 않지만, 다양한 에피소드가 모여 거대한 작품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사람들은 최 참판가의 유산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 자신들의 암울한 앞날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다양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데, 대부분의 이야기<sup>12)</sup>들은 ‘끝’이 없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장면으

12) 여기에서 ‘이야기’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 의미이다. 서사학적으로 말하자면 채트먼이 『이야기와 담론』(한용환 옮김, 푸른사상, 2003)

로 넘어가 버린다. 끝나지 않고 넘어갔던 특정한 이야기가 작품의 어느 순간에 다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작품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그냥 묻혀버린 경우도 많다. 이들 에피소드 중에 몇 개를 삭제하거나, 몇 개를 덧붙여도 『토지』라는 작품이 쉽게 바뀌지 않을 정도 이들 에피소드 간의 연결은 느슨한 면이 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토지』의 결말까지도 ‘느슨한’ 면이 있다. 『토지』는 수양딸 양현이 서희에게 조선의 독립 사실을 전하면서 끝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까지 지리산에 숨어 있던 사람들과 그들을 뒤쫓는 밀정의 이야기가 긴박하게 전개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토지』 6부가 있어서 ‘독립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상에서 밝힌 『토지』의 서술 특징은 작품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는 『토지』가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은 에피소드적 서술 특징 때문에 ‘느슨한 향유’가 가능한, 소설사에서 드문 작품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설로서는 드물지만 이미 TV드라마를 통해 익숙한, 현대적 대중서사 양식에도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이다.

사실 에피소드적 구성이 TV드라마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대부분의 경전들도 에피소드적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경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전은 다양한 에피소드가 묶여 있다. 해당 종교를 믿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경전은 어느 한 구절도 뺄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경전은 분명히 느슨하게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갖고 있다.

경전의 구성이 느슨한 것은 일차적으로, 특정 종교의 신자 중에서 자

---

에서 구분한 ‘이야기 요소’와 ‘담론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서사 일체이다.

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모두 읽은 뒤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사유로 신을 믿게 되고, 경전 읽기는 그 과정에서 부수적이고 진행형으로 나타난다. 경전을 모두 읽지 않고도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핵심 교리를 충분히 이해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 경전은, 자신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항상 편리하게 신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경전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단 한 구절이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읽고, 그러한 독서를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신의 뜻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는 물론 경전이 아니다. 특정한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고, 읽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읽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는 묘하게 경전을 닮았다. 며칠 만에는 도저히 읽을 수 없을 만큼 분량이 길고,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두어 번을 읽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교인들이 사제의 설명을 들으며 종교의 요체를 이해하듯이, 『토지』도 책만 읽기보다는 전문가의 해설을 들었을 때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텍스트이다.

지금까지 『토지』의 긴 분량과 단속적 서사에서 오는 완독의 어려움,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서술 특징 때문에 『토지』는 ‘느슨한’, 또는 ‘관대한’ 독서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토지』의 서술 특징에 근거하여, 『토지』의 대중적 향유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해 보겠다.

### 3. 개별적 장애 요소의 극복 전략

『토지』의 대중적 향유를 강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토지』를 더 많은 대중이 읽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며, 『토지』를 읽는 대중이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더 충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이다. 전자가 『토지』의 독자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이라면 후자는 『토지』를 읽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여주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작품의 완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토지』의 대중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토지』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되, 그가 작품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토지』를 향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작품을 완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독자의 몫이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축약본 발간, 장르 변용, 작품 해설, 서사 일부의 독립,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다섯 범주에서 『토지』의 대중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 3-1. 축약본 발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토지』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려할 것은 작품의 분량이다. 『토지』는 단속적 구성과 긴 분량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완독이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토지』 축약본을 발간하는 것은 『토지』를 대중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현재까지 출간된 <청소년 토지>와 <어린이 토지>는 분량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춘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 역시 독자의 연령층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나, 이 글에서 제안하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축약본은 『토지』의 주제, 구성, 문체 등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두 권의 분량으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토지』의 재서술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축약본의 성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축약본은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축약본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저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1890년 <황금가지>라는 제목으로 된 2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후 그는 25년 동안 10권의 책을 추가로 출간하여, <황금가지>는 모두 12권이 되었으며, 이 책은 세계 민속학 연구에서 기념비적인 고전이 되었다.<sup>13)</sup> 하지만 그의 저서를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했다. 애초부터 일반인 독자를 염두에 둔 대중서로 기획했던 <황금가지> 연작은 방대한 분량 때문에 관련 전공 학자들만 읽는 책이 될 뻔 하였다. 하지만 <황금가지> 연작으로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프레이저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1922년에 1권짜리 <황금가지 축약본>을 집필하였다. 이 축약본은 프레이저가 직접 12권 전작의 구성과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술과 종교 문제를 짜임새 있게 압축하였다. 이 축약본을 계기로 <황금가지>는 전 세계의 일반 독자들이 기꺼이 읽을 수 있는 대중적 고전이 되었다.

프레이저가 직접 축약한 <황금가지>는 출판사의 이름을 따서 ‘맥밀런판’<sup>14)</sup>이라 불리며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황금가지 축약

13) 이후에도 프레이저는 1936년에 <황금가지 보충편> 1권을 추가로 출간하였다. 보충편을 포함하면 <황금가지>는 모두 13권이다.

14) ‘맥밀런판’은 프레이저가 직접 축약했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약본이다. 우리나라에서 맥밀런판의 번역은 동서문화사(1979년, 신상욱 옮김), 삼성출판사(1991년 장



본) 출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맥밀런판 역시 그 분량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번역본을 기준으로 맥밀런판의 분량 역시 1000장이 넘는다. 일반적인 단행본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그래서 메리 더글라스가 서문을 쓰고 세이빈 매크맥이 축약한 도설판(圖說版) 〈황금가지〉(1978)가 출간되었다. 도설판에는 다양한 사진 및 그림 자료가 덧붙여졌고, 분량도 맥밀런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뒤늦게 출간되었지만 현재 이 책은 맥밀런판 이상으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sup>15)</sup> 이 밖에도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축약본〉에 주석을 붙여 출간한 로버트 프레이저의 옥스포드판 〈황금가지〉(1994) 역시 유명하다. 이 판본은 제임스 프레이저 연구자인 로버트 프레이저가 축약본에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 맥밀런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저자 생존 시에 종교적 이유로 논란이 되어 출간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라는 장이 새로 추가되었다.<sup>16)</sup>

위에서 예로 든 세 가지 축약본은 모두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저작이며, 국내에서도 세 가지 판본이 모두 번역 출간되었다. 비록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토지』의 축약본을 기획한다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텍스트이다. 『토지』의 축약본은 단순하게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 정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연구와 분명한 주제 의

---

병길 율김), 을유문화사(2005년, 박규태 율김) 등 세 군데에서 했다. 동서문화사 판본은 최초의 〈황금가지〉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삼성출판사 판본은 최초 번역본의 일본어 중역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을유문화사 판본은 번역자의 애정 어린 주석이 꼼꼼하게 들어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한 판본이다. 활자를 크게 하여 조판의 시안성을 높였고, 2권으로 분책한 것도 을유문화사 판본의 특징이다

15) 국내에서는 이경덕이 번역하여 1995년에 ‘까치’사에서 출판하였다. 이경덕은 일본책을 전문적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 판본은 일본어로 된 책을 중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국내에서는 이용대가 번역하여 2003년에 ‘한겨레신문사’에서 출판하였다.

식을 갖고 원본과는 다른 차원에서, 원본 이상의 독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새로운 『토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축약본이 출간되어야 한다. 이렇게 출간된 축약본은 『토지』 향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중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깊이와 가치를 인정받은 축약본은 이후에 외국어 번역 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번역 사업은 『토지』 전권을 번역하는 데에 치우쳐 있었다.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과는 전혀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외국인이 한국인들도 완독하기 어려운 『토지』 전권을 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sup>17)</sup> 하지만 다양한 축약본이 나온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축약본의 가치는 독자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다양한 복수의 축약본 중에는 세계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하게 구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본이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된다면, 세계인이 『토지』를 ‘정말 읽는 그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 3-2. 장르 변용

『토지』의 장르 변용은 그 동안 이루어진 가장 일반적인 대중화 작업이었다. 지금까지 『토지』는 TV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TV드라마는 전 국민이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드라마가 방영될 때마다 소설 『토지』의 판매량 역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3번이나

17)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역시 국내에는 축약본 3가지만 출판되었을 뿐, 전집은 출판되지 않았다. 이는 무리한 전집 번역보다, 잘 만든 축약본의 번역이 특정 작품의 세계화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드라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TV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계기<sup>18)</sup>가 없다면, 기존에 방영되었던 방식으로 TV드라마를 다시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기존의 TV드라마는 이른바 대하드라마를 표방하면서 대작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SBS에서 방영했던 『토지』는 52부작이었고, 1987년 10월부터 1989년 8월까지 KBS에서 방영했던 『토지』는 이보다 훨씬 더 길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비슷한 컨셉트로 동일한 대작을 기획하는 것은 방송국 입장에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니시리즈의 형식을 취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새로운 관점에서 5부작, 또는 10부작 내외로 제작한다면 『토지』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면서 대중화에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지』를 미니시리즈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특정 시각에서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축약판 도서 『토지』의 드라마 버전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토지』의 장르 변용은 매체를 바꾸어 난이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만화 토지〉를 들 수 있다. 만화는 매체의 특성상 인물의 표정과 행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 작품을 쉽게 수용하도록 돕는다. 최근 마로니에북스에서 17권으로 출간된 〈만화 토지〉는 그 좋은 예이다. 앞으로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건, 특정한 주제 의식만을 중심으로 한 권짜리 만화책을 출간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럴 경우 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읽지 않고, 특정 시점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라 색다른 독서 체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18) 『토지』가 해외 문단에서 호평을 받거나, 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TV드라마 『토지』를 본 사람이 거의 없을 때를 예로 들 수 있겠다.

프랑스의 글레나 출판사는 ‘만화로 읽는 불멸의 고전’ 시리즈로 유명하다. 여기에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등의 작품이 한 권의 만화로 축약되어 있다. 각 책의 만화는 매우 수준 높고, 스토리 전개 역시 아주 세련되었다. 그러면서도 전체 분량은 일반적인 만화책 반 권 두께도 되지 않는다. 책을 읽어보면 얇은 만화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과 평화〉는 전쟁의 혼란과 죽음, 그리고 절망적 경험 이후에 깨닫는 삶의 의미를 만화적 양식을 활용하여 매우 감각적으로 잘 그려냈다. 소설 『토지』를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전의 만화적 변용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

### 3-3. 그 밖의 방안

이 밖에도 서사의 일부를 독립시켜, 일부 내용만으로 독립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소설, 영화, TV드라마, 만화, 그림, 음악 등 어떤 장르로도 가능하다. 작품의 모든 감동을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작품의 특정한 감동을 재현하는 데에는 오히려 작품 전체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창조적 모방을 통해 현실의 총체성을 현실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커다란 세계를 이룬 『토지』는 부분적 모방을 통해 전체를 더 잘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박경리 문학 포럼<sup>19)</sup>은

19) 박경리 문학 포럼의 연도별 세미나 주제 및 발표 논문 목록은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박상민, 『한국근대문학연구』 31호, 2015) 310-312쪽을 참고할 것.

매년 가을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박경리 문학 전공자들의 학술세미나가 있고, 이튿날에는 ‘내가 만난 박경리’와 ‘인물 열전’이라는 행사가 진행된다. 첫날 행사가 문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튿날의 행사는 박경리 연구자와 일반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튿날의 두 가지 행사는 모두 박경리 문학의 대중적 향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만난 박경리’는 생전에 박경리 작가와 친분이 있었던 지인이 나와 박경리 작가와의 에피소드와 다양한 인상들을 강연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는 박경리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이 행사에서 청중은 강연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의 삶과 인성, 그리고 그의 작품관에 대해 전체적이고 즉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인물 열전’은 『토지』의 주요 인물을 두 명씩 골라, 각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낭독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각 인물별로 재구성될 때에 전혀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작품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이야기만으로 재구성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하여 작품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작품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개주, 별당아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개주와 윤씨 부인의 애정담, 별당아씨와 김환의 첫 만남 등은 작품에 전혀 서술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새롭게 재구성하여 『토지』 사전을 편찬할 수도 있고, 『토지』 아케이드를 만들어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하이퍼링크 시킬 수도 있다. 또 지역의 서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스토리텔링도 작

품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원주시와 통영시, 그리고 하동군에서는 박경리 『토지』를 각 지역의 중요한 서사문화자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기념관 건립,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문학상 시상 등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과 협력에 바탕으로 두고 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박경리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절실하다.

#### 4. 결론

『토지』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소설 『토지』는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어야 할 것 같다. 독자에게 원본 소설을 완독해야 『토지』를 읽은 것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변화하는 서사적 수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지친 대학생이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잠시 꺼내 보는 웹툰, 웹소설의 수용 환경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소설 장르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토지』는 더욱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소설 『토지』는 수많은 단편소설이나 중편소설로 변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토지』의 축약이본(縮約異本)이 유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축약이본 중에서 대중과 연구자들로부터 관심과 호평을 받는 판본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소설 『토지』의 새로운 축약정본(縮約定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축약정본을 바탕으로 외국어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토지』는 세계문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

임스 프레이저가 그의 저서 〈황금가지〉를 13권으로 집필했다가, 다시 1권의 축약본을 만들자 비로소 세계적인 고전이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토지』는 다른 서사물로 변용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예술 장르로 변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인물화(人物畵)’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토지』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의 수도 매우 많다. 주요 인물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부별로 10명 이상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므로, 어림잡아 수십 명의 주요 인물군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너무 많아 독서가 끝난 후에도 이미지가만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삼국지연의〉 속의 주요 인물들은 분명한 형상을 갖고 독자의 뇌리에 남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형상이 애초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비, 장비, 관우, 제갈량 등 주요 인물들의 인물화를 그렸고, 그 중에서 〈삼국지연의〉의 내용에 가장 걸맞는 인물화가 대중에게 채택된 것이다. 이제 독자는 오랜 시간 속에서 다수 대중이 선택한 주요 인물들의 형상을 인식한 채로 작품을 읽는다. 삼국지연의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화, 게임 등의 변용 작업을 거쳤지만, 인물들이 모두 유사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토지』도 그러한 목표를 갖고 다양한 인물군의 형상을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은 소설 『토지』의 또 다른 변용물이고, 그 자체로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인물화가 나오면, 그 중 일부 작품은 다수 대중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토지』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 대중에게 향유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다양한 장르 간 이동은 예술의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다

수 대중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든다. 『토지』의 대중화 전략이 다른 예술 작품의 대중화 전략에 중요한 모범이 될 수도 있다. 『토지』의 대중화 작업으로 인해 수많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고전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장르 간 자유로운 변용을 통해 민족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토지』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토지학'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박경리, 『토지』 1~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 2. 논문과 단행본

김원규, 『『토지』의 단역인물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265-331쪽.

김인숙, 『박경리 『토지』의 대화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경리 글, 오세영·박명운 그림, 『만화 토지』 1~17권, 마로니에북스, 2016.

박상민,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31호, 한국근대문학연구회, 2015, 271-319쪽.

이승윤, 『『토지』의 서사 전개 양상과 소설 작법』, 『대중서사연구』 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417-447쪽.

정현기, 『세 틀의 '새집 짓기' 이야기 떨기—『토지』 해석의 또 한 눈길』, 『현대문학의 연구』 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162-200쪽.

최유찬, 『『토지』의 장르론적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 1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409-433쪽.

토지학회 편, 『토지와 서사구조』, 마로니에북스, 2016.

레오 톨스토이 글, 토마 캄피 그림, 『전쟁과 평화』, 임호경 옮김, 문학동네, 2012.

시모어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옮김, 푸른사상, 2003.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황금가지』, 신상욱 옮김, 동서문화사, 1979.

\_\_\_\_\_, 『황금가지』, 장병길 옮김, 삼성출판사, 1991.

\_\_\_\_\_, 『황금가지』, 이경격 옮김, 까치사, 1995.

\_\_\_\_\_, 『황금가지』, 이용대 옮김, 한겨레신문사, 2003.

\_\_\_\_\_, 『황금가지』, 박규태 옮김, 을유문화사, 2005.

허버트 마셜 맥루헌, 『미디어의 이해』, 김상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3. TV 드라마

김병욱 외, 〈거침 없이 하이킥〉, MBC, 2006~2007.

\_\_\_\_\_, 〈지붕 뚫고 하이킥〉, MBC, 2009~2010.

\_\_\_\_\_,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MBC, 2011~2012.

## Abstract

The Popular Enjoyment Strategies Based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Pak Kyong-ni's novel *Toji*

Park, Sang-Min(Ka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Park Kyong-ni's novel *Toji* and describes the popular enjoyment strategies based on them. *Toji* is very difficult to read. Because it is too long. In addition, the narrative keeps breaking. So it is very hard to focus on reading for a long time. For this reason, despite *Toji* being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Korean literature, it is rare for people to completely read *Toji*.

Based on an awareness of this dynamic, this paper proposes a new reading method for *Toji*. The essence of new reading method is to be more 'loosely and tolerant' read, away from the burden of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work properly if the entire work is completely read. In this article, I suggest the publication of an abridged version of *Toji*, a transformation of genre, and popular cultural events. Especially, if several shortened versions are published and compete with one another, a single abridged copy may come to stand out over time. This will b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popularization of other literary works.

As such, the popularization strategy for *Toji* may become an important model for the popularization of other works of art. It will be an important touchstone for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Korean classics and for the enrichment of national culture through freely changing genres.

(Keywords: Pak Kyong-ni, *Toji*, popular enjoyment, narrative characteristic,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oji*, abbreviation, genre transformation)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13일